

집합행위와 감정

집합적 분노는 언제 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가

박형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 전공

phsnet4u@hanmail.net

- I. 머리말
- II. 감정과 집합행위: 연구의 흐름
- III. 분노의 감정동학과 집합행위
- IV. 집합행위의 장에서의 폭력적 분노표출의 감정동학
- V. 맺음말: 비폭력적 분노표출만이 아름다운가

I. 머리말

도심의 상징적 거리와 주요 건물 앞에서 자신들의 집합적 분노를 표현하는 ‘거리정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쉽게 목도되는 현상이다. 과거 이러한 시위 현장—특히 정치적 집회의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급기야 폭력적 진압과 폭력적 저항의 전투장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광화문과 시청 앞을 가득 메운, 성격이 다른 대규모 집회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폭력사태 발생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그 원인으로 ‘시민의식의 성숙’을 들고 있다. 이러한 평가, 즉 집합행위에서 비폭력적 분노표출의 근저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뒤집으면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변화의 중심 동력이 되었던, 폭력행위를 포함한 집합행위들—4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등—은 극단적으로는 무분별한 폭도의 행동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폭력적 저항자들을 폭도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럴 경우 폭도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분노는 부정적 감정이고 따라서 폭력적 분출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단순 논리적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입견을 벗어나서, 집합행위의 장에서 분노가 반드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폭력적 분노표출 속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래의 긴 인용문은 감정과 집합행위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

문화의 여타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은 온갖 사회적 행위와 사회관계의 한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감정은 비합리적 행위만큼이나 합리적 행위들, 부정적 경험만큼이나 긍정적 경험을 수반한다. 인지적 의미 또는 도덕적 원리와 같은 문화의 여타 측면들처럼, 감정은 개인의 퍼스널리티로부터 발산되는 것인 것만큼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감정은 전통과 인지적 평가에 의존한다. 달리 말해, 프로이트식 이론가와 군중 이론가들 모두는 감정을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했다. 이제 감정과 여타 형태의 문화적 동학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감정과 조직적·전략적 동학

간의 상호작용 역시 고찰하는 경험적 작업이 요구된다. 감정은 그러한 동학 모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

이러한 인식, 특히 감정이 낳는 합리적 행위와 긍정적 경험은 사회운동 연구자들, 그중에서도 자원동원이론가와 정치과정이론가들로 하여금 집합행위의 합리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게 했다.²⁾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폭력적 집합행위들은 일련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저항폭력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낳았다.³⁾ 하지만 이들 모두의 연구는 합리성과 구조적 원인에 집착한 나머지 집합행위에서 감정을 배제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최근 사회운동에서 감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어왔다.⁴⁾

국내에서도 사회운동에서 폭력의 발생구조에 관한 치밀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었고,⁵⁾ 집합행위에서 감정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제출되었다.⁶⁾ 하지만 이 둘을 연결짓는 연구, 즉 집합행위에서

-
- 1) 제프 굿윈·제임스 제스퍼·프란체스카 폴레타, 「서론: 감정이 왜 중요한가」, 굿윈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한울, 2012), 24쪽.
 - 2) Anthony Oberschall,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William A. Gamson,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Homewood, Ill.: Dorsey Press, 1975);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6 (1977), pp. 1212-1241;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1978).
 - 3) 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Donatella della Porta, *Social Movements, Political Violence, and th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Italy and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4) Jeff Goodwin,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The Return of the Repressed: The Fall and Rise of Emotions in Social Movement Theory", *Mobilization*, vol. 5(2000), pp. 65-84; 제프 굿윈·제임스 제스퍼·프란체스카 폴레타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한울, 2012); 제임스 제스퍼, 박형신·이혜경 역, 『저항은 예술이다』(한울, 2016).
 - 5) 신진욱,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 38권 6호(2004), 219-250쪽; 홍성태, 「사회운동의 폭력성 구조화: 억압과 저항의 폭력적 상호작용, 1960-1987」, 『경제와 사회』 115호(2017), 183-211쪽.
 - 6)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임 과정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 분석」, 『경제와 사회』 73호(2007), 203-243쪽; 박선웅, 「의례와 사회운동」, 『한국사회학』 41권 1호 (2007), 26-56쪽; 박형신·이진희, 「떡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13집(2008), 147-183쪽; 엄보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6권 (2009), 7-51쪽;

감정이 어떤 경우에 폭력적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 분출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연결지점을 분노의 감정동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집합행위에서 분노 감정이 표출되는 감정동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감정적인 사회적 행위로서의 집합행위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폭력의 ‘감정적’ 정당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지,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II. 감정과 집합행위: 연구의 흐름

1. 집합‘행동’에서 집합‘행위’로

집합행위에서만 감정이 격렬하게 표출되는 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행위(행동), 집단적 저항행위, 사회운동의 연구에서 감정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적도 있다.⁷⁾ 이러한 경향이 발생한 것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좁게는 군중이론적 접근방식, 보다 넓게는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 학파의 전통에 대한 학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 전통의 밑에 깔린 가정은, 집합행동은 군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비합리적 광란이라는 것이었다.

이 전통의 뿌리를 이루는 저작이 르봉의 『군중심리학』(초판 1895)이다. 르봉에 따르면, “수가 더 많을수록 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과 “수에서 생기는 일시적이지만 상당한 권력” 때문에, 군중은 고립된 개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미친하고 무능력하다는 느낌에서 해방되는 대신에 야만적이고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힘을 인식하게

김왕배, 「언어, 감정, 집합행위: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5권(2017), 7-59쪽.

7) 굿윈, 제프·제임스 채스퍼·프란체스카 폴레타, 앞의 글(2012), 12쪽.

된다. …… 그리하여 군중은 가장 나쁜 극단적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⁸⁾ 이러한 르봉의 논의 밑에는 감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깔려있다.

르봉의 전통을 따르는 사회학적 집합행동 이론가들은 감정의 병리성보다는 집합행동을 추동하는 감정의 확산에 더욱 주목한다. 그중 대표적인 학자인 허버트 블루머는 ‘순환반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집합행동에서 감정이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과정을 설명한다.⁹⁾ 그에 따르면, 집합행동에서 상호자극—즉 순환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집합적 흥분’은 감정을 고조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과 충동의 포로가 되게” 하고 “점점 더 불안정하고 무책임하게 만든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전염’이란 이러한 “분위기나 충동 또는 행동 형태가 비교적 빨리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블루머에게서도 여전히 군중은 ‘사회불안’과 ‘집합적 흥분’의 영향으로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리고 신경증에 걸려 “집단 규범의 규제 없이 헤매는” 것으로 인식된다.¹⁰⁾

다른 한편 일부 집합행동 이론가들은 사회학자들답게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조건에 더욱 주목한다. 이를테면 닐 스멜서는 집합행동 이론의 고전적 저작 『집합행동이론』에서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집합행동의 필요조건으로 ‘구조적 긴장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구조적 긴장은 “행위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의 손상과 그로 인한 그 요소들의 부적절한 작동”에서 기인하며, 적대적 분출은 이해갈등, 규범적 불(不)통합, 가치 차이 등과 같은 긴장으로부터 발생한다.¹¹⁾ 이러한 스멜서의 입장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무분별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집합행동 이론가들은 그 참여자들의

8) 귀스타브 르봉, 민문홍 역, 『군중심리학』(책세상, 2014), 69쪽.

9) Herbert G. Blumer, “Collective Behavior”, in Robert E. Park, ed., *An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and Noble, 1939), pp. 219-280.

10) 콜린 바커, 「공포, 웃음 그리고 집합적 권력: 1980년 8월 폴란드 그단스크 레노 조선소에서 자유노조 만들기」, 국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한울, 2012), 273쪽.

11) Neil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New York, N.Y.: The Free Press, 1963), pp. 47. 48.

불만과 좌절을 불러일으킨 긴장과 사회해체를 강조하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자인 터너와 킬리안은 집합행동이 안정적인 제도화된 활동들과는 다르지만 “병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에 속하는 학자들에게서 집합행동은 결코 의식적인 합목적적 행위가 아닌 어떤 것—무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것—을 의미했다.¹³⁾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사회운동들은 그것의 참여자들을 “아노미적이고 파편화된 비합리적 일탈자들”이 아니라 “잘 통합된 조직의 합리적 성원”이라고 바라보고 그들의 활동을 비제도적인 비정상적인 집합행동이 아니라 비제도적이기는 하더라도 정상적인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로 표현하는 새로운 이론적 흐름이 등장했다.¹⁴⁾ 이 후자의 논의를 대표하는 것이 자원동원이론이다. 이 입장의 주도적 인물들인 매카시와 잘드는 공식적인 운동조직의 자원동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조직의 지도자가 합리적이고, 그들의 동기는 감정적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이며, 운동의 참여자들은 분노한 개인들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제 집합행동이 아닌 집합행위라는 이름을 통해, 집합행위는 이성적이고 자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지만 아니라 (좀 더 좁게는) 전략적이고,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측면에서 계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⁶⁾ 새로운 관찰자들은 이제 ‘왜’라는 동기보다 ‘어떻게’라는 과정의 측면에서 운동조직의 건설, 운동전략, 전술 책략의 선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전의 이론가들이 그들의 감정이 저항자들을 비합리적으로 만든다고 결론내렸다면,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은 합리적 저항자들에게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 이후 감정은

12) Ralph H. Turner and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3d ed. (Englewood-Cliffs, N.J.: Prentice Hall, 1987), pp. 7-8.

13) 제임스 제스퍼, 박형신·이혜경 역, 『저항은 예술이다』(한울, 2016), 53쪽.

14) 진 코헨·앤드루 아라토,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2』, 박형신·이혜경 역(한길사, 2013), 241-242쪽.

15) McCarthy and Zald, op. cit.

16) 크레이그 칼훈, 「감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기」, 굿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한울, 2012), 79쪽.

사회운동과 집합행위 이론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¹⁷⁾

2. 합리성에서 감정으로

르봉이 감정적 군중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렸지만, 그가 감정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역할까지를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예, 자기희생, 종교적 신념, 애국심, 명예심과 같은 감정들은 이제까지 모든 문명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⁸⁾ 하지만 감정이 군중 속에서 개인들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주장한 군중이론의 전통이 저항자들의 합리성을 발견한 새로운 세대의 이론가들에게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감정은 저항행위의 부정성만을 부각시킬 뿐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론적 논의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칼훈의 표현으로, “매우 심각한 몇몇 편견으로 채워진 욕조의 물과 함께, 감정이라는 아이 역시 버려졌다.”¹⁹⁾

하지만 집합행위 이론가들에게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자원동원이론가들에게서조차 감정은 집합행위에서 여전히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정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인간사회에서 불만은 항상 존재하지만 항상 집합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켄킨스와 페로는 “박탈당한 집단에게 불만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감정만으로는 왜 어떤 집단은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들을 조직화하는 데 반해 다른 집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이론가들에게서는 자원과 동원 그리고 조직이 집합행위의 발생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매카시와 잘드는 이들 운동조직에서 이슈 사업가들(issue entrepreneur)이 그들 스스로 불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²¹⁾ 이는 그들이 중시하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감정 또한 집합행위의 중요한

17) 국원·제스퍼·플레타, 앞의 글(2012), 17쪽.

18) 르봉, 앞의 책(2014), 136쪽.

19) 칼훈, 앞의 글(2012), 79쪽.

20) J. Craig Jenkins and Charles Perrow, “Insurgency of the Powerl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 no.2(1977), p. 251.

21) Mayer N. Zald and John D. McCarthy, *Social Movements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Collected Essays*(New Brunswick, N.J.: Transaction, 1987).

자원임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합행위에서 감정은 단지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콜린스가 지적하듯이, 감정은 “하나의 사회를 묶어주는 힘—연대의 접착제—이자 갈등을 동원하는 힘—집단동원의 에너지—이다.”²²⁾ 그리고 “감정은 사회적 행위를 동반하며, 그것에 동기와 목적을 제공한다. 사회운동은 보다 안정적인 정서적 연대와 충성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맥락특수적인 감정, 즉 정보와 사건에 대한 반발로부터도 영향 받는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그들이 저항집단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 속에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어떤 감정은 집합행위 자체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된다.”²³⁾

그렇다면 감정은 집합행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분노라는 감정을 축으로 하여 이를 해명해보기로 하자.

III. 분노의 감정동학과 집합행위

1. 화, 격분, 분노

모든 분노가 집합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회는 집합행위로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분노가 집합행위로 이어지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바꾸어 쓸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는 화(anger)와 격분(rage) 그리고 분노(indignation/resentment)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anger를 일반적으로 ‘분노’로 번역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전달되거나 용어들이 혼용되어 감정연구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화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노엽거나 언짢아하는” 불쾌한 감정을 총칭한다. 화는 감정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에게서 ‘기본 감정’에 해당한다. 기본 감정은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 영향 받기 이전에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발전해온 것으로, 모든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인간존재에

22) Randall Collins,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niv. Press, 2004), p. 103.

23) James Jasper,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13, no.3(1998), p. 397.

공통적인 감정을 일컫는다. 기본 감정에 어떤 감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보다는 이견이 더 존재하기는 하지만,²⁴⁾ 화는 그 어떤 목록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기본 감정 체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화는 생존본능과 관련한 감정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며, 극히 강렬하고 또한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 화는 생물학적인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에크만에 따르면, 기본 감정은 단일한 정서적 상태가 아니라, 공통의 테마를 공유하지만 차이 역시 드러내는 일군의 서로 관련된 감정상태들이다.²⁵⁾ 이를테면 유아원에서 짜증을 내는 어떤 아이, 길에서 말다툼하는 두 사람, 또는 몹시 화가 나서 다른 운전자에게 ‘로드 레이저를 표출하는 어떤 운전자 모두는 화라는 공통의 군(群)에 속하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²⁶⁾ 이렇듯 화라는 감정에도 여러 층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화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클로어와 그의 동료들은 화와 관련된(angerlike) 감정들을 좌절감정(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는), 분노감정(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결과를 포함하는), 치욕감정(비난의 속성을 포함하는), 화감정(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와 비난 모두를 포함하는)으로 구분하기도 했다.²⁷⁾ 그렇지만 화라는 감정에 좌절, 치욕, 분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들과 구분되어야 하는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²⁸⁾

하지만 감정과 집합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본 논의에서는 불가피하게 화 및 그와 관련된 감정을 조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정을 행위의 한 동인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감정사회학의 입장에서는 감정인식을 인지적·평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감정을 행위이론의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차원들

24) Jonathan H. Turner,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2007), pp. 4-5 표 참조.

25) Paul Ekman,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vol.6, no.3/4(1992).

26) Ian Burkitt,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 (London: Sage, 2014), p. 26.

27) Gerald L. Clore, Andrew Ortony, Bruce Dienes, and Frank Fuijita, “Where Does Anger Dwell?” in Robert S. Wyer Jr. and Thomas K. Srull, (eds) *Perspectives on Anger and Emotion*(Hillsdale, NJ: Erlbaum, 1993), pp. 68.

28) Scott Schieman, “Anger”, in Jan E. Stets and Jonathan H. Turner,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edited by New York: Springer, 2007), p. 494.

을 추가하여 화와 관련된 감정들을 화, 격분, 분노로 나누어 개념화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화를 다마지오식의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율신경계의 작동에 의한 감각적 지각으로 상정하고,³⁰⁾ 이를 감정이라기보다는 최근 정서이론(affect theory)에서 말하는 정서에 가까운 속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화가 직접 행위로 표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던컨과 바렛에 따르면, 정서적 반응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내적 부호 또는 표상으로 번역하는” 수단이다.³¹⁾ 그리고 감정과는 달리 정서라는 용어는 대상 또는 상황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정서이론에 근거할 때, 화는 외적 자극에 대한 신체감각적 반응으로, 다른 화와 관련된 감정 개념에서 공통의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심적 현상이며, 행동으로 발전할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정적 성격으로 인해 대체로 감정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격분은 화 자체와는 달리 행동으로 그것도 강력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로드 레이지(road rage)’, ‘컴퓨터 레이지(computer rage)’, ‘트롤리 레이지(trolley rage)’, ‘골프레이지(golfrage)’ 또는 ‘기내 난동(air rage)’과 같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들이 보여주듯이, 폭력성을 그것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화가 나게 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공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지만, 그 강렬함은 비(非)표상적이고 비(非)의식적이며, 따라서 공격적 행위 역시 의도되지 않은 것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은 후회를 동반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격분은 퍼스널리티의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 드러내는 비합리적인 병리적 현상이 되어 개인 수준에서는 전문가의 치료의 대상으로 전화되기도 한다.³²⁾ 또한 집합행동이론의 전통에서 파악한 무분별한 화나 분노의 표출로서의 폭동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격분의 집단적 표출을 집합행동의 감정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29)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한길사, 2015).

30) Antonio Damasio,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London: Papermac, 1994).

31) Seth Duncan and Lisa F. Barrett, “Affect is a Form of Cognition: A Neurobiological Analysis,” *Cognition and Emotion*, vol.21, no.6(2007), pp. 1185.

32) 프랭크 푸레디, 박형신·박형진 역, 『치료요법문화』(한울, 2016).

반면 우리의 분석의 대상인 분노는 화라는 신체적 감각에 인지적·평가적 차원이 합쳐져서 해석된 감정을 의미한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느낌과 감각으로 간주되고 또 분명 그러한 차원들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느낌과 감각과는 달리 '지향성, 그리하여 하나의 대상을 갖는다.'³³⁾ 따라서 감정은 그 대상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의 분석목적 을 위해 자신을 불쾌하게 한 대상에 대한 단순한 느낌과 감각을 화로 규정하고, 무엇이 그러한 화를 나게 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인지하고 평가한 경우를 분노로 규정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를 화나게 한 상황, 상대방, 사건들에 관심을 둔다.³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가운데서 의미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반응한다.³⁵⁾ 이렇듯 분노는 화의 원인이 분석되고 그것의 표출 표적이 설정되며 전화된 감정이다.³⁶⁾ 따라서 이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행위의 원천이 되고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행위자들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합리적 자기이익의 침해나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인지적 분노가 저항행동의 동인임을 주장했다.³⁷⁾ 따라서 집합행위에서 분노는 무분별한 공격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일련의 해결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⁸⁾ 그러나 모든 분노가 집합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 또한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신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분노가 집합감정으로 전화하고 집합행위의 동력으로 작동하는가?

33) 잭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225쪽.

34) Jeff Coult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Mind*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79), p. 127.

35) 하홍규, 「분노를 보다: 감정과 사회적 맥락」, 『감성연구』 6집(2013), 98-99쪽.

36) 제스퍼, 앞의 책(2016), 235쪽.

37) Ron Eyerman and Andrew Jamison, *Social Movements: A Cognitive Approach*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38) 바바렛, 앞의 책(2007), 83쪽.

2. 분노와 집합행위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분노 관련 행위들을 목도한다. 기물파손, 우발적 살인, 복수, 테러, 점거행위, 고소 고발, 집단시위 등 무수한 현상들이 우리가 정의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분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동일한 감정도 단일 인과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상황과 맥락과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양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적 행위를 연구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감정의 원인과 그 표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감정이 유발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감정적 존재인 인간에게서 그 어떤 것도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 유발 원인은 크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특정한 외적 자극이나 환경에 대한 즉각적 반응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규정한 분노는 인지적·평가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분노의 궁극적 원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타자나 환경에 돌려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나쁜 학점을 받고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의 궁극적 원인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신이 시험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친구의 괴롭힘이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분노의 원인은 친구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가 항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 즉 혹실드가 말하는 '감정작업'(emotional work)을 통해 내적으로 관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감정은 그 표출의 대상이 설정될 때 행위로 전화된다. 켈퍼의 지적대로, 감정은 내사될(introjected) 수도 있고 외사될(extrojected) 수도 있다.⁴⁰⁾ 켈퍼는 미시적 상호작용의 상황에 근거하여 내시는 자신이 관계된 감정의 원인이라고 간주될 때 발생한다면, 외사는 타자가 그 원인으로 인식될

39) Arlie. R.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40) Theodore D. Kemper,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p. 52.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캠퍼의 단순 도식에 분노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차원(대인관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구조적 차원)을 도입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 행위양식은 감정과 행위를 매개하는 '배후감정(background emotion)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⁴¹⁾

먼저 분노의 원인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분노의 원인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일 수도 있으며, 타인에 의해 유발될 경우일 수도 있다. 이 중 특히 인지적·평가적 차원에 의해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판별될 때, 분노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 감정은 수치심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인들은 불안행동을 보이거나 그 분노가 극단적으로는 자신을 공격할 경우 자살로 귀착되기도 한다. 반면 분노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을 때, 분노는 그것을 유발한 타인을 향하게 되고, 그 감정은 복수심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분노 유발자에 대한 복수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분노 유발자를 공격할 수 없는 경우 무차별적 타자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분노가 사회적 또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경우, 심한 좌절감을 경험한다. 이 경우 분노는 내사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 사람들은 개인적 원인에 의해 분노가 내사되는 경우와 유사한 행동패턴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를테면 공개적인 분신자살의 경우가 그러하다. 반면 분노가 사회적·구조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고, 그것이 사회적 적대감으로 발전하여 외사될 경우, 조금 더 복잡한 행동유형들이 등장한다. 그 적대감이 개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표출될 경우, 개인적 원인의 분노가 외사될 경우와 유사한 행동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일명 묻지마 범죄와 같은 범죄나 차량돌진에 의한 기물파괴와 같은 파괴적 폭력행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적대감이 집합적으로 표출된 경우, 시위, 테러와 같은 집합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중 조직화된 소수(때로는 다수)의 분노자들에 의한 폭력적 파괴행위의 경우

41) 바바렛, 앞의 책(2007); 박형신·정수남, 앞의 책(2015).

테러로 나타나며, 비조직화된 다수의 행동은 집단시위와 같은 집합행위로 나타난다. 하지만 집합행위에는 반드시 적대감을 배후로 하는 분노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 시위라는 공간은 개인적·사회적 분노를 개인적으로 내사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이유로 인한 분노가 내사되어 좌절감을 겪고 있던 개인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집합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도표화하면 표1과 같다. 하지만 아래의 표는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을 이상형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모든 행위양식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래 표는 분노가 배후감정을 매개로 하여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로만 한정된 것이다. 만약 개인적·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분노가 내사되고 그것이 체념의 감정을 유발할 경우 다시 화의 감정 수준으로 약화되어 그것들은 하나의 행위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분노로 인해 발생한 행위의 배후감정들, 즉 수치심, 복수심, 좌절감, 적대감의 경우에도 다시 내사되어 체념의 감정을 유발할 경우나 그것들이 무력감과 결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복수심과 적대감이 내사될 경우 수치심과 좌절감이 유발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양식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러한 매우 복잡한 분노 표출양식 중 집합행위만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표1-분노 감정의 표출 양식

원인	표출방향	배후감정	행위양식
대인관계	내사	수치심	불안 행동, 자살 등
	외사	복수심	(개인적) 공격행동, 증오범죄 등
사회	내사	좌절감	불안행동, (저항적) 자살 등
	외사	적대감	개인적: 공격행동, 증오범죄 등 집합적: 집단 시위, 테러, 혁명 등

3. 집합행위의 동력으로서의 분노

따라서 당연히 다음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은 어떤 분노가 집합행위를 추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셜은 일찍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계급적대의 감정적 원천이며, 계급분노의 수준이 계급갈등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⁴²⁾ 바바렛은 흑인 인권운동의

사례연구들을 분석하며, 분노는 “기본권의 주장과 연관된 도덕적 분개의 형태 내지 표현”, 다시 말해 “욕구 충족이 사회적으로 침해당한 것에 대한 감정적 이해”이며, “분노의 표출은 권리 요구의 신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⁴³⁾

이러한 주장—불평등과 기본권 침해가 분노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그 밑에 ‘부정의 내지 부당한 대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에서 분노와 집합행위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 첫째는 분노의 발생과 관련된다. 우선 모든 불평등과 기본권 침해가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노는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폭되기도 한다. 즉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불만의 정도에 이르지 분노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단순한 화를 느끼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반대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분노일 경우에도 그것이 꼭 집합행위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분노를 느낄 경우라도 그것으로 사회적으로 표출할 공간—자원동원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기회구조—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응어리진 분노’의 형태로 축적될 수도 있다.⁴⁴⁾ 따라서 분노와 집합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매개고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은 계급행위와 민권운동이라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대상으로 분노의 원인을 탐색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정치운동의 경우 참여자의 불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2016-17년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집회참여자들이 들고 나온 깃발의 성격과 자유발언대에서 쏟아진 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분노의 원인과 내용은 그 깃발의 수와 발언자의 수만큼이나 많았다. 따라서 집합행위에서의 분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불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메커니즘과 그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집합행위에서

42) Thomas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3), p. 168.

43) 바바렛, 앞의 책(2007), 226, 214, 222쪽.

44) 스테판 메스트로비치,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한울, 2014).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분노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분노가 집합행위로 이어지는 과정과 집합행위에서의 분노표출양식에만 초점을 맞춘다.

먼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는 사실은 현실이 ‘부정의’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의에 대한 자각으로서의 분노의 감정은 개별적 차원에서 넘쳐날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의에 따라 그 분노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가 분노에 덧칠해 놓은 부정성 탓에 표출되기보다는 억누름의 대상이 되어 사회 안에 개별적으로 축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노가 하나의 집합행위로 결집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의 철학자 슬로터다이크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한데 모을 ‘분노의 은행’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역사 속의 수많은 분노가 하나의 공통된 역사로 뭉칠” 계기가 필요하다.⁴⁵⁾ 한국의 집합행위의 역사 속에서 부정선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 사건, 국정농단 사태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고립된 분노는 지저분한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다가 증기로 증발되거나 시커멓게 눌러 붙은 채 다시는 나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둘째로, 그러한 분노를 콜린스가 말하는 ‘감정에너지’로 전화시키는 저항조직과 분노의 조직자들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회에서의 중앙조직과 다양한 대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하위조직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개별적 차원의 분노를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실은 감정-부정의감 및 도덕적 분개감-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를테면 집회의 연설자들은 그 집회의 핵심 가치와 개별적 가치가 하나의 뿌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부도덕한 사회와 부정한 정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변한다. 그리고 개별 연사들의 발언에 대한 ‘맞습니다’라는 호응은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서로 다른 목적에서의 분노표출을 하나의 대의로 묶어내며, 공통의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를 진전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표출은 참여자의 호응을 통해 ‘도덕적 옳음’을 확인받고, 집회참여자들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자

45)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덕임 역, 『분노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이야기가 있는 집, 2017), 122쪽.

46) 같은 책(2017), 123, 125쪽.

가 아닌 '도덕적 저항자'의 신분을 확보한다. 하지만 우리가 집합행위자 모두가 운동조직의 동원의 결과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노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을 집회에 다 강제로 동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성 없는 동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는 '희망'이 그들을 계속해서 집회에 참여하게 한다.

셋째로, 이러한 집회의 과정은 분노의 표출대상을 명확하게 인식시킨다. 특히 사회적 분노의 경우 그 표출대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표류하기도 한다. 사회 또는 분노의 사회적 책임자는 항상 그 사회의 분노를 '개인화'하는 기제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청년실업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부적응한 결과이고, 따라서 더 노력해서 적응해야 할 것을 강변한다. 하지만 집회는 그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회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감정적 행위자를 합리적 저항 행위자로 전화시킨다. 도덕적 분개는 저항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고,⁴⁷⁾ 표적이 분명할수록 분노와 저항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이다.⁴⁸⁾

IV. 집합행위의 장에서의 폭력적 분노표출의 감정동학

1. 저항전략과 억압전략의 변증법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집합행동 이론의 기본적인 인식 중의 하나는 군중 속에서 분노는 폭력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합행위의 장에서 분노의 표출양식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파괴적 성격을 제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노가 꼭 폭력적으로 표출되

47) William A. Gamson,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8) 채스퍼, 앞의 책(2016).

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기 바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분노에 설정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항상 (꼭 성공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표출방식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집합행위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⁹⁾ 개별적 분노 표출의 경우에 분노는 상대방이 예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폭력적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계획된 복수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집합행위의 장은 이미 분노 표출의 장으로 마련되고, 저항행위의 조직자들이 그 분노의 표출방식을 관리한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집회는 무수한 청중-대중매체의 시청자들을 포함하여-의 인지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도덕적 저항의 성격을 띠는 집회의 경우, 폭력적 분노표출은 더욱 더 관리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집합행위의 장은 단지 저항자들의 분노만이 표출되는 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성격의 저항의 경우에 그곳에는 저항대상(표적)들의 분노 역시 표출되는 장이다. 이를테면 국가의 실정에 대한 저항운동의 경우에 국가권력의 운영주체나 정치인들 역시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할 경우 권력상실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만, 부당한 모함이라고 인식할 경우 분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의 파업에서도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인식할 경우 분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집합행위는 또 다른 분노와 집합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행위는 저항자의 분노와 상대세력(정치적 저항의 경우 국가)의 분노가 충돌하는 장이고, 그 두 분노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폭력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또한 두 세력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두 세력은 분노의 표출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전략은 개인과 집단이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자에 반응하고 또 미래의 반응들을 예측하면서 취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⁵⁰⁾ 따라서 집합행위는 이들의 전략적 행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된다.

49) 바바렛, 앞의 책(2007), 127-28쪽 참조.

50) 채스퍼, 앞의 책(2016), 50쪽.

집합행위에서의 행위전략의 선택과 관련하여 즉시 떠오르는 것이 톨리의 ‘집합행위의 레퍼토리’(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라는 개념이다. 톨리에 따르면, 저항자들은 그들의 이전 경험들, 그들의 일상의 과정과 운동 내부조직, 당국의 선택적 억압, 그리고 옳음과 정의의 통상적 기준들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선택한다.⁵¹⁾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18세기 행위 레퍼토리에 전형적이었던 식량폭동, 조세반란, 온정주의적 당국에 대한 호소가 19세기에는 시위와 파업으로 대체된다.⁵²⁾ 그리고 루흐트는 행위논리(도구적 행위논리와 정의적 행위논리)와 행위전략(권력지향과 정체성지향)을 교차시켜 집합행위의 레퍼토리를 구분하기도 한다.⁵³⁾ 또한 태로는 저항집단과 그 적대자들 그리고 제3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집합행위의 전략을 규정하는지를 연구하기도 했다.⁵⁴⁾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이 행위 레퍼토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저항자들의 감정은 그냥 전제한다. 즉 그들의 분노는 저항전략에 맞추어 서로 다른 강도로 표출될 뿐이다.

하지만 집합행위의 장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에는 감정의 관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집합행위에서 전략적 행위는 이성적으로 빈틈없이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맹목적인 힘에 압도당하지 않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의 통제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응전략을 의미한다.⁵⁵⁾ 집합행위에서 분노는 그냥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자들, 그들의 동맹자, 그들의 적 그리고 국가가 벌이는 복잡한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순화 또는 강화되어 표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행위의 전략 결정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국가의 전략 결정은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51) Tilly, *Op. cit.* (1978), p. 156.

52) Charles Tilly, Louise Tilly and Richard Tilly, *The Rebellious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53) 디터 루흐트, 「새로운 운동의 전략과 행위목록」, 러셀 달턴·만프레드 퀴홀러 편,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1996), 229-30쪽.

54) Tarrow, *Op. cit.* (1994).

55) 엄묘섭, 앞의 논문(2009), 9쪽.

2. 분노 강화하기 대 분노 승화하기

칼훈은 집합행위에서의 감정동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것은 우리의 주제인 집합행위에서 분노표출 양식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에 좀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운동은 감정을 생산한다. 즉 운동은 단지 성원들이 운동에 참여하게끔 한 감정적 지향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성원들의 마음을 끄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헌신을 확고히 하고, 공유된 의미를 유지하고,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감정분출의 ‘도취감’을 하나의 ‘선택적 유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반복해서 감정을 재생산한다. ‘절정’의 감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들은 다소 **의례화**되기도 하며, 운동 지도부들에 의해 일정 정도 의식적으로 관리된다. 계속해서 운동참여를 자극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정적 개입의 종류 중 하나가 감정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군중이 계속해서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야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참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주 운동을 절정의 **대결상황**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⁵⁶⁾

이 시점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이 ‘감정의 생산’, ‘의례’, 그리고 ‘감정의 대결상황’이다. 이중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앞의 두 가지를 먼저 논의하고, 이 둘의 또 다른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의 대결상황은 다음 소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집합행위의 장은 이미 생성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이 만들어지거나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환경이다.”⁵⁷⁾ 바로 여기서 문화사회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뒤르케미적 의미에서의 ‘의례’이다. 그들에 따르면, 의례는 집합행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집합적 감정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이다.⁵⁸⁾ 그들은 뒤르케미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한다. 집합적 의례 속에서 “감정은 순간적으로 고조되고”, “표출된 모든 감정은 각각의 감정에서 서로 공명하고 …… 최초의 감정은 매번 공명할 때마다 증폭된다.”⁵⁹⁾

56) 칼훈, 앞의 글(2012), 91-92쪽; 강조 첨가.

57) 굿윈·제스퍼·폴레타, 앞의 글(2012), 38쪽.

58) 제스퍼, 앞의 책(2016), 375쪽.

59)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pp. 217-18.

이러한 뒤르켐식 입장을 취해 집합행위에서의 의례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가 콜린스이다.⁶⁰⁾ 콜린스는 집합적 의례에서 두 가지 종류의 감정 변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것은 초기 감정의 확대를 수반한다. 만약 초기 감정이 도덕적 분노라면, 그것에 대한 집단의 집합적 초점 맞추기는 그러한 분노감을 더 강렬하게 만든다. 둘째로, 그것은 초기 감정을 그와는 다른 어떤 것, 즉 연대감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성원임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만든다.⁶¹⁾ 콜린스는 이것을 '감정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뒤르켐이 때때로 '도덕적 힘'으로 지칭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집합행위에서 그러한 연대감을 강화하는 의례로 제시되는 것이 거리 무대에서의 노래와 춤이다. 아래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함께 부르는 '집합 노래'는 집회와 시위와 거리 행진과 심지어 혁명과 같은 집합행위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그것은 운동 참여자들의 집합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운동참여자들은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좁다란 실리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합체의 도덕 이상에 관심을 쏟게 된다.⁶²⁾

사회적 태도와 열망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자세와 몸짓 속에 체현되고, 그리하여 춤은 도덕적 전망과 감정을 단호하게 표현한다. 춤은 양식화된 언어의 하나로, 의례의 일부로서 또는 그것 나름의 의례화된 형태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춤이 집단의 신체 동작을 주의 깊게 조화시킴으로써 그것의 통일성을 전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것은 공연자와 관찰자에게 똑같이 개인적·집단적 힘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춤이 집합적 연대, 역량강화 그리고 애착을 구축하는 데 극히 중요할 수 있는 이유이다.⁶³⁾

이처럼 뒤르켐적 문화사회학의 전통에 따르는 학자들은 특히 의례의 감정적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일상에서 단순히 차도였던 거리 무대는 열광적인 놀이의 장(場)이자, 집합의식과 연대가 발현되는 신성한 공간이 되었다"고 파악한다.⁶⁴⁾

60) Randall Collins,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niv. Press, 2004).

61) 랜달 콜린스, 「사회운동과 감정적 관심의 초점」, *국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한울, 2012), 51쪽.

62) 박영신, 「운동 문화'의 사회학」, 『사회이론』 27권(2005), 57쪽.

63) 채스퍼, 앞의 책(2016), 392쪽.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운동 의례에 대한 뒤르켄식 해석은 군중이론의 전통을 넘어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전통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블루머의 전염이론처럼 감정적 전염을 가정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고양된 감정이 비합리적·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연대감과 도덕감정으로 승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히 분노와 같이 부정적 감정으로 간주되는 감정의 경우, 의도와는 달리 강화된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 둘째, 집합행위의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감정적 이유에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인적 감정이 의례를 통해 접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서로 다른 불만이 어떻게 동일한 대의—이를테면 도덕감정—로 응집되고 승화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집합행위에서 그러한 감정들이 형성되는 것과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먼저 집합행위는 감정표출의 장이라는 점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합행위의 장은 집합적 감정의 표출만이 아닌 개인적 감정의 표출의 장이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때때로 집합행위의 공간에서 극단적인 개인적 감정—단순한 화와 격분—의 표출로 인해 전체 집합행위자들이 폭도라는 누명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집합행위의 지도부가 특히 부정적 감정으로 평가받는 분노와 같은 경우에 감정을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노래와 춤이라는 신체적 감정표출과 자유발언과 같은 담화적 감정표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춤과 노래는 집합적 행동의 양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감정의 분출을 위한 의례이기도 하다. 춤과 노래는 전통적인 집합행위의 수단이었지만, 또한 그것의 수행방식이 변화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시위에서 운동 가요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했고, 그것이 콜린스가 말하는 감정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춷불)문화제라는 형식의 새로운 집합행위 레퍼토리는 개인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즉 집합행위에서의 춤과 노래는 재스퍼가 강조하는 집합행위의

64) 김선웅, 앞의 논문(2007), 46쪽.

‘즐거움’을 산출한다.⁶⁵⁾ 즉 집합행위자들은 또 다른 축제에 참여하고,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탈춤 공연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감정적 용어리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집합행위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와 춤이 만들어내는 동일한 집합적인 감정적 분위기에의 노출이 물론 집합적 흥분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집합적 흥분을 집단연대감과 도덕감정의 공유로 등치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집합행위는 단순히 감정을 개인적으로 표출하는 장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표출하는 장이다. 따라서 개인적 감정들이 공유되는 메커니즘 역시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개인적 분노에 대한 ‘공감’의 형성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담화적 형태의 발언들이다. 여기서도 그간 변화가 있었다. 그간 대부분의 시위에서 발언자는 그 시위의 조직자들로, 그들의 발언은 그 시위의 정당성을 참여자에게 강변하고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집단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식고취’의 형태를 취하고, 따라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정적 동의’보다는 ‘의식적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발언대 형식의 일반 참여자들의 발언은 각기 자신들의 처지에서 겪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청중들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불의에 의한 서로의 고통을 ‘공동의 고통으로 가슴으로 공유하고, 각자의 고통의 정당함을 확인해준다. 이제 껌슨의 ‘부정의 프레임’—껌슨에 따르면, 모든 감정들 중에서도 부정의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강인하게 하는 정당한 분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⁶⁶⁾—이 청중들에게 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노가 승화되며 도덕감정을 형성해나간다. 이제 참여자들은 개인적 불만을 넘어 집합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카타르시스의 과정에는 또 다른 역설이 존재한다. 도덕감정은 그 나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와 ‘그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구체적인 저항표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운동의 지도부는 감정의 순화가 집합행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65) 채스퍼, 앞의 책(2016).

66) Gamson, *Op. cit.*(1992), p. 32.

감정을 집단적 행위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저항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감정—이를테면 증오, 혐오—을 구성하여 적대감을 분출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적’의 응징을 통한 더 높은 감정적 카타르시스 경험하기이다. 이는 운동세력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집합행위의 레퍼토리들—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리행진, 적에 대한 공격 행위(연좌농성, 투석, 공공시설 점거 등)—을 동원하게 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칼훈이 말하는 ‘대결상황’이며, 극단적인 경우 폭력적 행위로 분출된다. 이렇듯 집합행위에서 분노 감정의 표출방식은 한편에서는 운동세력이 이러한 분노 강화하기 전략과 분노 승화하기 전략을 어떻게 조합하여 전략적 행위를 수행하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저항 지도부는 전략 선택에서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한다. 분노 승화하기 전략은 평화집회의 이미지를 생성시키지만,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집회의 목적이 자신들의 대의를 전파하는 것이기에 대중매체의 주목이 필요하지만, 평화집회는 뉴스가치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노 강화하기 전략은 자칫 폭력적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그것은 뉴스가치를 가지더라도 비우호적 보도로 인해 저항자들을 폭도 내지 일탈자로 취급하게 만들 수도 있다.⁶⁷⁾

3. 공포 조장하기 대 시민 보호하기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합행위 공간에서 분노표출 방식이 저항세력의 감정관리 전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곳은 저항세력과 적이 대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저항의 경우 그 적은 대체로 국가(그리고 그 대행 행위자인 경찰)로 설정되지만, 국가세력과 감정적 일체감을 갖는 또 다른 집합행위자들이 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는 저항세력과 국가세력의 관계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집합행위에서 국가가 취하는 전략적 행위는 대체로 국가의 성격—권위주의적인가 민주적인가—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보다 사회운동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폐쇄적 ‘정치적 기회구조’가 분노를 더 폭력적으로 표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⁶⁸⁾ 따라서 권위주의적 국가는 정치적으로

67) 토마스, 로큰, 「서유럽 평화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 러셀 달턴·만프레드 퀴홀러 편,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한울, 1996), 155-56쪽 참조.

폐쇄적이고 저항세력에게 배제적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두 세력 간의 분노 충돌은 폭력적일 것이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억압적 국가에서도 비폭력적 집회들이 있었고, 민주화된 정부하에서도 폭력적인 집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권의 성격이 곧 국가의 대항전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델라 포르타와 그의 동료들은 국가의 대응양식을 경찰의 이용가능한 자원과 외적 현실에 대한 지각을 기본 변인으로 하여 ① 경찰력을 이용한 절멸(extermiation)전략, ② 위협(intimidation) 전략, ③ 최소교섭(minimal bargaining)전략, ④ 협력(cooperation)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했다.⁶⁹⁾

우리는 이러한 대항전략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동한다고 파악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항상 집합행위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국가권력과 집합행위자들은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대응전략 역시 외적인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관적 대처전략 역시 중요하며, 그들의 정치적 목표 또한 중요하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내적 구조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무수한 요인이 작동할 것이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권력주체들의 감정이다.

국가에 대한 집합적 저항은 국가주체들도 화나게 한다. 그리고 저항에 맞서야 하는 국가 역시 그 화의 이유에 대한 평가적 작업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국가주체들의 감정 역시 화에서 분노로 전화한다. 집합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체 역시 자신의 분노가 자신들의 잘못에 의한 내부적인 것인지와 자신들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의 모함이나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탐색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역시 또 다른 배후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사와 외사되는 경우에 따라 대응전략 또한 달리 나타난다.

먼저 국가세력의 분노 역시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별될

68) Herbert P. Kitschel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6, no.1(1986), pp. 7-85.

69) Donatella della Porta, Olivier Fillieule and Herbert Reiter, "Policing Protest in France and Italy: From Intimidation to Cooperation", in David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1998), pp. 113.

경우, 국가주체의 감정도 분노에서 수치심으로 전회한다. 그러나 이 수치심의 표출방식도 자신의 지지기반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따라 달라 나타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주체가 지지기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국가는 저항자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포함하는 ‘포용전략’을 취하고자 할 것이고, 극단적 경우 정권퇴진을 결정할 수도 있다. 반면 국가 행위자가 강력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외부의 희생양만들기 작업—이를테면 간첩단 조작, 다른 비리의 폭로 등—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외부로 시선 돌리기 정책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대응전략은 시위자와 시민의 분노를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시민보호 전략’을 그 기초로 삼을 것이다,

반면 국가의 주도세력들이 저항자와 시민들의 부정의 주장들이 반대세력들의 모함이나 정치전략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행위자들은 적대감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강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억압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폭력을 적극 사용하는 등 참여 시민들에게 강력한 ‘공포 조장 전략’을 적극 사용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억압전략이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분노를 강화하여 저항세력을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세력과 일반 참여자를 분할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주도세력을 검거하는 강력한 전략과 함께 공권력의 사용을 통해 검거 공포를 조장하여 일반 참여자들을 해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할지배를 위해 국가폭력 수단은 일부 자제된 채 시민보호 전략과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화하면 표2와 같다. 그러나 이는 표1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상형적 구분일 뿐이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또 다른 배후감정들이 형성되며, 다른 전략 및 복합적 전략이 구사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세력들이 저항세력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의 강·약과 무관하게 외부세력에게 돌릴 경우 강력한 억압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표2-국가 행위자의 분노와 배후감정 그리고 대응전략

분노 원인	배후감정	지지기반	대응전략	공권력 표출 형태
내부	수치심	약	포용 전략	시민 보호하기
		강	외부 희생양 만들기 전략	시민 보호하기
외부	적대감	약	분할지배 전략	시민 보호하기 공포 조장하기
		강	억압 전략	공포 조장하기

지금까지 논의한 저항자들의 저항전략과 국가 행위자들의 대응전략을 종합할 때, 집합행위에서 분노 감정의 폭력적 표출은 저항자들의 분노강화 전략과 국가 행위자들의 공포 조장하기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정사회학적 시각이 아닌 정치적 기회구조와 저항주기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신진욱의 노동운동에서 국가·자본과 노동자 저항행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와 홍성태의 민주화운동에서 억압과 저항의 폭력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되기도 했다.⁷⁰⁾ 하지만 집합행위에서 분노감정은 저항전략과 억압전략만이 아니라 집합행위가 진행되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리고 우연한 돌발적 사건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평화적인 시위에서 갑자기 폭력집회로 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감정동학에 관한 치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와 저항세력의 상호 분노가 갖는 역동적 효과의 분석 역시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집합행위의 감정동학과 감정표출양식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V. 맺음말: 비폭력적 분노표출만이 아름다운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집합행위에서 분노가 항상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평등주의·페미니즘·평화주의·생태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집합행위들은 비폭력 직접행동 하위문화를 그 특징으로

70) 신진욱, 앞의 논문(2004); 홍성태, 앞의 논문(2017).

한다.⁷¹⁾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은 국가와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이 충돌할 가능성도 적다. 폭력적인 집합행위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국가행위자의 분노와 저항자의 분노가 직접 충돌하는 민주화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두가 분노를 집합적으로 분출한 것은 아니었다. 홍성태의 연구에 따르면, 투석전과 최루탄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민주화 시위에서도 폭력시위는 각기 28.54%, 23.75%, 28.04%였다.⁷²⁾ 앞서 설명했듯이, 폭력적 집회가 발생하는 데에는 무수한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여기서 이 비율이 높고 낮음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균중이론가들의 주장처럼 균중의 집합행위가 항상 폭력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다.

집합행위에서 폭력적 분노표출은 ‘폭력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비난 받아왔고, 폭력행사자는 무분별한 ‘폭도’라는 낙인을 찍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분노한 저항자들에 의한 진보의 역사였다.⁷³⁾ 비록 소수의 반동적 폭력도 있었지만, 그것이 불리일으킨 분노는 또한 새로운 진보를 위한 집합적 분노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머리말에서도 지적했듯이, 만약 집합적 분노의 표출이 폭도들의 행위였다면, 역사는 폭도의 역사가 되고 마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역설은 폭력을 기성 지배체제가 휘두르는 제도적 강압과 강자의 약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와 같은 ‘억압의 폭력’과 지배체제에 대한 탈법적 항거와 생존을 위한 방어적 저항과 같은 ‘해방의 폭력’으로 나누고,⁷⁴⁾ 소렐처럼 전자를 ‘무력’으로, 후자를 ‘폭력’으로 칭한 다음 후자에 윤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저항폭력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⁷⁵⁾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집합행위의 장에서 폭력은 어느 일방의 폭력이 아닌 (앞서의 표현으로는) 억압의 폭력과 해방의 폭력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둘은 항상 자신들의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 역설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행위에서 분노의 폭력적 표출과 관련한 비난과 찬미의 감정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71) 제스퍼, 앞의 책(2016), 383쪽.

72) 홍성태, 앞의 논문(2017), 197쪽.

73) 김삼웅, 『진보와 저항의 세계사』, (철수와영희, 2012).

74) 이용재, 『조르주 소렐과 『폭력에 대한 성찰』』, 조르주 소렐,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나남, 2007), 408-09쪽.

75) 조르주 소렐,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나남, 2007), 242쪽.

엘리아스가 『문명화과정』 제2권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문명화과정은 폭력이 피할 수 없던 일상이 되었던 상황에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었다.⁷⁶⁾ 그에 따르면, 국가 이외의 폭력행사는 모두 부당한 것이 되어 자율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 바로 문명화였다. 하지만 일찍이 베버가 지적했듯이, 국가의 폭력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정당하며,⁷⁷⁾ 따라서 항상 국가폭력의 행사에도 정당성의 확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는 저항행위 자체가 아니라 소수 폭력행위자의 폭력을 저항행위의 폭력적 억압의 근거로 삼는다. 반면 저항자들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 및 폭력 행사에 맞서 싸우는 '대항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의 정당화 논리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전체 사회에 폭력의 자율적 규제 의지를 약화시킨다. 이는 앞서 엘리아스가 언급했던 폭력의 약화과정으로서의 문명화과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엘리아스가 감정의 통제를 문명화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외부의 억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와 폭력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감정을 통해 저항폭력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집합행위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배후감정이다. 우리의 분석에 의할 때, 그것은 저항세력과 국가행위자 모두에서 분노의 감정이 적대감으로 전화되는 경우였다. 이러한 감정상황에서 감정적 성찰(emotional reflection)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자신을 선(善), 상대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명분은 너무도 정당하고 상대방의 명분은 형편없기 때문에, 패배를 면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것도 동원해야하고, 동원되는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이다."⁷⁸⁾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폭력의 악순환의 근거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폭력은 그것을 유발한 원인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 그 자체는 사회에서 이미 '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76) Norbert Elias, *The Civilizing Process: vol. II State Formation and Civilization* (Oxford: Blackwell, 1982).

77)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 I* (New York: Bedminster, 1978), p. 54.

78) 에릭 홉스봄, 이원기 역, 『폭력의 시대』, (민음사, 2008). 135쪽.

때문에, 폭력 그 자체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에서 처벌의 대상이며, 이것이 바로 국가폭력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합적 저항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적 폭력행위만이 아닌 집합적 '대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후일의 역사적 평가는 물론 도덕적 재평가의 또 다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저항폭력은 비난과 찬사라는 또 다른 대립감정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국가의 폭력과 저항폭력은 역사적으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

먼저 국가폭력은 저항행위가 아닌 폭력행위의 억압, 저항자가 아닌 폭력행위자인 범죄자의 처벌에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민주적 국가에서 비폭력적 저항행위는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력행위의 처벌에서 국가폭력은 완결된다. 하지만 국가폭력이 인명살상 등 국가폭력의 범위를 넘어설 때 어떠한 정당성의 근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분노의 원천이 되어 새로운 저항운동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것이 국가폭력의 가련한 운명이며, 최대한 제한되어야만 하고 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반면 저항폭력은 그것이 도덕적 대의를 추구하는 한, 상대세력에게 비난받고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그 대의와 저항행위는 종결되지 않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4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그 투쟁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대의에 의해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그 다음의 저항운동의 동력이 되었고, 그 저항운동의 희생자는 찬사와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분노가 비록 폭력을 수반했지만 그것이 그 대의를 통해 감정적·도덕적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저항과 진보의 역사인 이유이고, 비폭력적 분노표출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추앙과 숭배의 대상이자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폭력이 아니라 그 도덕적 대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항폭력의 감정적 승화와 폭력의 미화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굿윈, 제프·제임스 채스퍼·프란체스카 폴레타, 굿윈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한울, 2012.
- 김삼웅, 『진보와 저항의 세계사』. 철수와영희, 2012.
- 르봉, 귀스타브, 민문홍 역, 『군중심리학』. 책세상, 2014.
- 메스트로비치, 스테판,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 한울, 2014.
- 바바렛, 잭,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
는가?』. 일신사, 2007.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 소렐, 조르주,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 나남, 2007.
- 슬로터다이크, 페터, 이덕임 역, 『분노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이야기가
있는 집, 2017.
- 채스퍼, 제임스, 박형신·이혜경 역, 『저항은 예술이다』. 한울, 2016.
- 코헨, 진·앤드루 아라토,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2』. 박형신·이혜경 역, 한길사,
2013.
- 푸레디, 프랭크, 박형신·박형진 역, 『치료요법문화』. 한울, 2016.
- 홉스봄, 에릭, 이원기 역, 『폭력의 시대』. 민음사, 2008.
- Burkitt, Ian,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 London: Sage, 2014.
- Collins, Randall,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niv. Press, 2004.
- Coulter, Jeff, *The Social Construction of Mind*.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79.
- della Porta, Donatella, *Social Movements, Political Violence, and th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Italy and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Damasio, Antonio,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London: Papermac, 1994.
-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 Elias, Norbert, *The Civilizing Process: vol. II State Formation and Civilization*.
Oxford: Blackwell, 1982.
- Eyerman, Ron and Andrew Jamison, *Social Movements: A Cognitive Approach*.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Gamson, William A.,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Homewood, Ill.: Dorsey

- Press, 1975.
- Gamson, William A.,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ochschild, Arlie. 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Kemper, Theodore D.,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Marshall, Thomas H.,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3.
- McAdam, Doug,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Oberschall, Anthony,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Smelser, Neil J.,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N.Y.: The Free Press, 1963.
- Tarrow, Sidney, *Power in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1978.
- Tilly, Charles, Louise Tilly and Richard Tilly, *The Rebellious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Turner, Jonathan H.,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2007.
- Turner, Ralph H. and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3d ed., Englewood-Cliffs, N.J.: Prentice Hall, 1987.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Vol. I*, New York: Bedminster, 1978.
- Zald, Mayer N. and John D. McCarthy, *Social Movements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Collected Essay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1987.

2. 논문

- 굿윈, 제프 · 제임스 채스퍼 · 프란체스카 폴레타, 「서론: 감정이 왜 중요한가」. 굿윈 외 편, 박형신 · 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한울, 2012, 11-48쪽.
- 김왕배,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5권, 2017, 7-59쪽.
- 로큰, 토마스, 「서유럽 평화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 러셀 달턴 · 만프레드

퀴흘러 편,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1996, 151-173쪽.
 루흐트, 디터, 「새로운 운동의 전략과 행위목록」. 러셀 달턴·만프레드 퀴흘러
 편, 박형신·한상필 역,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1996, 220-245쪽.
 바커, 콜린, 「공포, 웃음 그리고 집합적 권력: 1980년 8월 폴란드 그단스크 레닌
 조선소에서 자유노조 만들기」. 굿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한울, 2012, 261-290쪽.
 박선웅, 「의례와 사회운동」. 『한국사회학』 41권 1호, 2007, 26-56쪽.
 박영신, 「운동 문화의 사회학」. 『사회이론』 27권, 2005, 57-92쪽.
 박형신·이진희, 「먹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13집, 2008, 147-183쪽.
 신진욱,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
 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 38권 6호, 2004, 219-250쪽.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임링 과정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 분석」. 『경제와 사회』 73호, 2007, 203-243쪽.
 엄묘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6권, 2009, 7-51쪽.
 이용재, 「조르주 소렐과 『폭력에 대한 성찰』」. 조르주 소렐,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 나남, 2007, 401-411쪽.
 칼훈, 크레이그, 「감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기」. 굿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한울, 2012, 74-92쪽.
 콜린스, 랜달, 「사회운동과 감정적 관심의 초점」. 굿원 외 편,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한울, 2012, 48-73쪽.
 하홍규, 「분노를 보다: 감정과 사회적 맥락」. 『감성연구』 6집, 2013, 79-116쪽.
 홍성태, 「사회운동의 폭력성 구조화: 억압과 저항의 폭력적 상호작용, 1960-1987」.
 『경제와 사회』 115호, 2017, 183-211쪽.

Blumer, Herbert G., "Collective Behavior", in Robert E. Park, ed., *An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and Noble, 1939, pp. 219-280.

Clore, Gerald L., Andrew Ortony, Bruce Dienes, and Frank Fujita, "Where Does Anger Dwell?" in Robert S. Wyer Jr. and Thomas K. Srull, (eds) *Perspectives on Anger and Emotion*, Hillsdale, NJ: Erlbaum, 1993, pp. 57-87.

della Porta, Donatella, Olivier Fillieule and Herbert Reiter, "Policing Protest in France and Italy: From Intimidation to Cooperation", in David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1998, pp. 111-130.

- Duncan, Seth and Lisa F. Barrett, "Affect is a Form of Cognition: A Neurobiological Analysis," *Cognition and Emotion*, vol.21, no.6, 2007, pp. 1184-211.
- Ekman, Paul,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vol.6, no.3/4, 1992, pp. 169-200.
- Goodwin, Jeff,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The Return of the Repressed: The Fall and Rise of Emotions in Social Movement Theory", *Mobilization*, vol.5, 2000, pp. 65-84.
- Jasper, James,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13, no.3, 1998, pp. 397-424.
- Jenkins, J. Craig and Charles Perrow, "Insurgency of the Powerl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 no.2, 1977, pp. 249-68.
- Kitschelt, Herbert P.,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6, no.1, 1986, pp. 7-85.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6, 1977, pp. 1212-1241.
- Schieman, Scott, "Anger", in Jan E. Stets and Jonathan H. Turner,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edited by New York: Springer, 2007, pp. 493-515.

국 문 초 록

일부 논자들은 비폭력적 집합행위를 목도하고 그 원인으로 '시민의식의 성숙'을 들고 있다. 이 설명은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하지만, 이 설명을 뒤집으면 과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역사적 변화의 중심 동력이 되었던, 폭력행위를 포함한 집합행위들은 극단적으로는 무분별한 폭도의 행동이었는데는 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폭도들이 인류의 역사발전을 이끌었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분노는 부정적 감정이고 따라서 폭력적 분출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단순 논리적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집합행위에서 감정이 어떤 경우에 폭력적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 분출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는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집합행위에서 감정이 어떻게 다루어져왔는지를 군중이론의 전통, 합리주의적 접근방식(자원동원이론과 정치과정이론), 감정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분노가 집합행위로 분출되는 감정동학을 분노의 원인과 분노의 표출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집합행위는 사회적·정치적 분노가 외사되고 사회적·정치적 적대감으로 전화되어 집단적으로 표출될 때 발생함을 규명한다. 셋째, 분노감정이 집합행위에서 폭력적 분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항자들의 분노강화 전략과 국가 행위자들의 공포 조장하기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상형적 모델을 통해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집합행위에서 폭력이 감정적·도덕적으로 승화되는 방식을 추적함으로써, 국가폭력과는 달리 저항폭력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근거를 밝힌다.

투고일 2018. 3. 20.

심사일 2018. 4. 16.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 감정(Emotion), 분노(Resentment), 저항 폭력(Resistant violence), 국가 폭력(State violence), 감정사회학(Emotional sociology)

Collective Action and Emotions: When and Why Is Collective Resentment Expressed Violently?

Park, Hyong-shin

Some commentators ascribe nonviolent collective action to the 'maturity of citizen consciousness'. While this explanation seems valid at first sight, if we put it reversely, a question may be raised that collective actions, including violent acts, which have been in the past the driving force of historical change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 the world history, were unreasonable mob behaviors. If so, it gives rise to the paradox that mobs have led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The paradox occurs because of the simple logical preconception that resentment is a negative emotion and thus generates negative results such as its violent eruption. This study explores theoretically when emotions are expressed violently in collective action and how a violent eruption is interpreted emotionally and given a meaning.

For this purpose, I firstly examine how emotion in collective action has been studied in the tradition of crowd theory, the rationalist approach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political process theory), and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sociology. Secondly, I look into the emotional dynamics of resentment being expressed as collective action in relation with the cause of resentment and the direction of its expression, and explicate that collective actions occur when social and political resentments are projected externally and transformed into social and political hostilities, which are then vented out collectively. Thirdly, using an ideal-type model, I draw the idea that resentments in collective actions lead to a violent eruption at a point where the resisters' strategy to reinforce resentment clashes with the state actors' strategy to foster anxiety. Finally, in conclusion, I elucidate the ground that resistant violence, unlike state violence, attains a historical significance by examining how the violence in collective action is sublimed emotionally and morally.